

미혼모의 성 인식

정 경 순¹⁾

서 론

최근 서구 성 개방 풍조의 유입, 성의 도구화와 상품화로 인한 저속한 성문화의 범람, 성산업의 번성 및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노골화된 성적 표현으로 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Yang, Back, & Jeong, 1999).

전통적인 문화에서 성은 순결해야 하고, 혼전에는 알면 안 되는 금기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에게 더 강조되었고, 남성에게는 훨씬 허용 적어서 성적으로 우월하고 성충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발산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차별적 성문화를 내면화 시켰다(Kwen, Chung, Ryu, & Chung, 1998; Ko, 2001). 그러나 최근 성에 대한 전통적 인식은 사회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서울시 여고생을 대상으로 성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학생의 58.9%가 이성교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입맞춤 이상의 성경험을 한 학생은 63.3%, 그 중에서 성관계를 경험한 학생은 무려 7.1%인 것으로 보고(Kim & Lee, 1999)하여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heon, Bae, Song, Song과 Jun(2002)은 10대 미혼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번 성관계를 하고 나면 그동안 성에 대해 소중하고 신비롭게 여겨왔던 생각들이 사라지고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성행위를 하게 되면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까지 이어져 불법유산이나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며, Yoon과 Lee(2002)도 미혼모의 성관계 연령이 낮아지면서 성병, 인공유산, 성폭력이 증가되고 결과적으로 미혼모의 발생 또한 증가되어 사회문제가 되

고 있음을 보고하여 성에 대한 변화된 의식구조와 가치관이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inistry of Health & Welfare(2002)에 의하면, 국내 8개 보호시설에 한 해 동안 입소한 미혼모 수는 1999년 1683명에서 2001년 1,801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외 입양 아동 중 미혼모가 낳은 입양 아동의 수도 1994년 83%에서 1999년 87%로 증가하고 있어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곧 미혼모라는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서구와는 달리 전통적 윤리관과 도덕적 규범에 비추어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이를 죄악시하고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 미혼모의 사회적응은 더욱 어려워지고(Han & Yang, 1997), 더 나아가 미혼모는 가정내에서나 사회적으로 지위를 잃게 되면서 출산 후 사회적 적응도 어려워 신체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로 미혼모 복지 대책(Do & Jung, 2001), 미혼모 발생 요인(Bae, 2000), 미혼모의 스트레스(Kim, 2001), 미혼모의 실태 분석(Moon, 2002)등 미혼모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조사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미혼모의 임신, 출산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Joo, 1999; Han, 2001)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시된 이러한 연구는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최근 성에 대한 보다 허용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들이 혼전 성관계를 갖게 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 즉 혼전 임신으로 미혼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주요어 : 미혼모, 성 인식

1) 김천과학대학 간호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lksjung@hanmail.net)

투고일: 2008년 4월 7일 심사완료일: 2008년 5월 14일

위한 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자신이 실제 임신을 경험하기 전에는 교육이 주어져도 성문제가 자신에게 발생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마침내 미혼모가 되고 나서야 성관계가 임신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고 성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즉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경험을 토대로 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며 이런 성 인식은 미래의 성행동 및 미혼모 재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혼모 상담과 실질적인 성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행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성 인식 즉 미혼모의 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혼전 성 관계로 인한 미혼모의 임신은 성에 대한 태도, 행동 및 인간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혼모들의 성에 대한 인식을 심도있게 연구해 봄으로써 미혼모가 된 대상자를 폭넓게 이해하며 미혼모 상담 자료, 미혼모 발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성교육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미혼모의 성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미혼모의 성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Colaizzi (1978)의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이다. Colaizzi (1978)의 현상학적 연구 분석 방법은 인간의 생생한 경험을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미혼모의 성 인식은 어떠한지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파악하여 경험 속에 내재된 의미를 확인하는데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자가 자원봉사활동으로 매주 1회씩 건강관리교육을 하고 있는 미혼모 보호시설의 기관장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입소중인 임신 중, 출산 후의 미혼모 중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로 선정하여 퇴소 후 2개월까지 면담을 지속하였다.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것과 면담자료는 익명으로 사용되고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자는 11명으로 10대가 7명, 20대가 4명이었다.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8월부터 2003년 9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면담 시 질문은 참여자가 생각하는 성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하였으며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해주거나 ‘그랬구나’와 같이 동의의 표시를 해주어 참여자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면담동안 중요하거나 의미가 모호한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참여자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확인하였다. 참여자와의 대화중 연구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대답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꼬리를 물고 행해졌으며 주된 질문내용은 ‘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였다. 면담은 더 이상 새로운 주제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였으며 시설 내에서는 건강교육 후나 주말오후 등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 퇴소 후에는 시설 내에서 참여자와 관계형성을 잘하여 산후의 신체관리에 대한 상담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후 건네받은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 상담을 해주면서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약속을 정해 연구자의 자동차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소요된 시간은 1회에 40분에서 2시간까지 평균 1시간 총 3-5회, 총 면담횟수는 47회 이루어졌다. 면담내용과 면담 시의 분위기, 참여자의 억양, 몸동작, 감정 및 표정, 연구자의 느낌은 면담 후 즉시 컴퓨터에 입력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면담내용은 자료의 누락을 막기 위해 참여자의 허락 하에 모두 녹음하였고 면담이 끝난 즉시 연구자가 참여자의 말 그대로 필사하였으며 필사된 자료는 전체적으로 녹음 자료와 비교하여 정확하게 옮겨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하는 동안 의미가 모호하거나 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다음 면담 시에 다시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 준비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과학철학 및 질적 간호 연구를 수강하였으며, 질적 연구와 관련된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에 대한 실제적 훈련을 거쳤고, 예비조사를 통해 질적 연구 방법 및 상담기법에 대해 훈련을 쌓았다. K 대학의 질적 연구회에 매월 정기 모임을 가지면서 질적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논문을 탐독하여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연구진행 전 과정동안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박사 2명의 자문을 구하고 지도를 받았다.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면담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심층면담을 위한 면담내용의 녹음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다. 미혼모라는 특수성 때문에 연구과정 동안 심층면담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노출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전에 면담내용과 개인정보는 전혀 노출하지 않을 것과 필사 및 녹음자료는 연구 후 소멸할 것을 약속하였다.

자료 분석

본 자료의 분석은 현상학적 연구 방법 중 Colaizzi (1978)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첫째, 참여자와의 면담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의 말 그대로 자료를 글로 옮겨 기록하였다. 둘째,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 중에 성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에 줄을 그으면서 의미를 숙고하였다. 셋째, 각 진술들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몰두해서 읽고 진술 중 성 인식에 관한 다양한 맥락과 범위 안에 감춰져 있는 의미를 밝혀내고자 하였으며 중요한 의미는 발췌하여 참여자의 의미 있는 진술을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위의 단계를 반복하면서 중요한 의미들을 주제별로 범주화하였다. 범주화된 주제는 원 자료와 일치하는지, 모순은 없는지, 빠진 내용은 없는지를 연구자 스스로 질문해보고 질적 연구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2인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의문이 날 때는 원 자료의 진술로 다시 돌아가 숙고하는 현상학적 반성을 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단계를 통해 미혼모의 성 인식을 총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주제로 밝혀진 주제와 범주를 연구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연구자가 생각한 주제의 본질이 연구 참여자가 의미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Lincoln과 Guba (1985)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 성, 일관성, 중립성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와 친근한 관계 형성이 된 후 심층적인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면담과 분석 과정에서 참여자의 면담 내용이 연구자의 기술 내용과 일치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적용 성을 위해 각 참여자의 진술이 포화상태에 이를 때 까지 심층 면담을 통하여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아닌 다

른 십대 미혼모에게 연구 결과를 보여주어 적용 성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 2명과 연구 진행 및 분석 전반에 걸쳐 논의하고 의견 일치를 하였다.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는 성에 대한 선 이해나 가정을 점검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이 면담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결과 참여자의 성에 대한 인식은 5개의 범주와 각 범주에 따른 12개의 주제군, 28개의 주제로 나타났다. 범주별로는 ‘도구로서의 성’, ‘욕구 충족의 성’, ‘지배당하는 성’, ‘윤리적인 성’, ‘정체감의 성’으로 나타났다<Table 1>.

[범주 1. 도구로서의 성]

[범주 1. 도구로서의 성]은 <생계수단>, <연결고리> 라는 2개의 주제 군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각에 반영된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생계수단>

참여자들은 집을 나와서 갈 곳이 없거나 잠 잘 곳이 없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남자가 좋아하는 성행위를 제공하면 자신들이 필요한 잠 잘 곳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상대 남성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어도 자신의 필요 즉 잠 잘 곳을 마련하기 위해 성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남자들은 무조건 성을 원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성을 제공함으로써 잠자리를 제공받았던 이전의 경험에 미루어보아 잠 잘 곳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관계를 떠올리고 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나와 있는 동안 잘 때가 없으니까, 잘 수가 있으니까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잘 때 없을 때 그 때 생각나요 자기 위한 수단이죠 남자에 대한 감정은 없죠 좋아서 라기 보다 그냥 자기 위해서, 일단 살아야 되니까, 갈 때가 없으니까 이 남자도 남자니까 분명히 같이 잘려면 그게 필요 할거다. 내가 먼저 자자고 그랬죠”<잠을 자기 위한 수단>

컴퓨터를 통하여 다양한 성 매체의 유혹을 받으면서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첫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면서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쉽게 이용하였다.

<Table 1> Perceptions of sexuality in unmarried mothers

| Category | Cluster of themes | Themes |
|--------------------------------|--------------------------------------|---|
| Sex as a tool | Means of liv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ans to get to sleep • Means to make money |
| | Chain of connec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ans for a possession • Means to maintain a relationship |
| Sex as an expression of desire | Something to wa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mething to arouse curiosity • Something to enjoy |
| | Something to express lov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mething to do if she likes • Something to express love |
| Sex to be dominated | Something insignifica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mething to do easily • Something meaningless |
| | Something related to dependenc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mething to be defiled • To do for someone • To be restricted and tamed |
| | Something filth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mething to dislike • Something dirty • Something scary • Something painful • Something bad • To lose virginity |
| Moral sex | Something secre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barrassing thing • Something to be ashamed of • Something to want to hide |
| | Something to take responsibility fo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mething connected with marriage • Something to be responsible for |
| | Something to connect with lif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lated to life and pregnancy • Something valuable |
| Sex as a sense of identity | • Expression of a gender | • Something related to being man or woman |
| | • Area of the peer culture | • Something to help assimilation with colleagues of the same age |

“아다를 깨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고 나서는 내가 그냥 남자랑 잘 바엔 돈을 벌자. 채팅하면서 얼마 줄게 이런 거 많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

● <연결고리>

참여자들은 성관계를 통해 상대남성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고 또 성관계를 하면 좋아하는 상대 남성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소유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은 않아요 그냥 내가 딱 주면 내 거 라는 거, 저는 완전 제 걸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 쪽이 확실히 전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소유의 수단>

상대남성과 관계를 지속하고 싶을 때 상대남성이 요구하는 성관계를 받아주지 않으면 떠나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상대 남성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인식하였다.

“성관계를 처음 요구할 때는 싫었는데 두 번 세 번 할 때는 개가 떠나갈까 봐, 못 가게 막으려고 붙잡으려고 했어요 오빠랑 연락 끊기 싫었으니까, 관계를 지속하고 싶었으니까” <관계지속의 수단>

[범주 2. 욕구 표현의 성]

[범주 2. 욕구 표현의 성]은 <하고 싶은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2개의 주제 군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각에 반영된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하고 싶은 것>

참여자들은 TV나 인터넷 또는 또래들과의 모임을 통해 쉽게 음란성 매체에 접하게 되면서 성을 이상하고 신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신도 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야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언니들이 19세 이상 비디오 같은 거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알게 됐죠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죠 비디오를 보니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남자하고 자고

"호기심 반 장난 반 신기했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신기했어요 신기하니까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랬죠"<호기심이 생기는 것>

성관계를 여러 번 경험한 참여자들은 성적 쾌감을 알게 되어 자꾸 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되었고, 관계를 지속하면서 임신에 대한 걱정이 되었지만 성관계 시의 느낌이 좋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서 성을 즐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좀 많이 지나고 나서 야가 안하고 있을 때는 하고 싶다. 왜 안하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싫었는데 자꾸 자니까 나도 즐기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즐기는 것>

● <사랑을 표현하는 것>

참여자들은 첫 성관계에 직면하면서 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복잡한 마음이 들지만 상대남성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혼전에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상대 남성이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죠 순간 지나가는 생각에 망설이기도 했지만 지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상태니까 임신 그것도 안 될 거라 생각했지만 임신도 생각되었고 야가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걸까, 더 좋아할 수도 있겠다."<좋아하면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애정의 표현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고 사랑이 바탕이 된 성관계는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성관계를 통해 임신, 출산을 경험한 당시에는 절대로 혼외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남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출산을 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사랑하는 사람과는 사랑의 표현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성이 의미가 있죠 사랑.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라 그랬죠 아직도 좋은 사람 나타나 나를 정말 사랑하면 한 파트너와 성관계를 해야겠다는 게 제 목표예요 즐기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랑의 표현, 정말 한 남자만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애를 낳아야지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것 아니면 자면 안돼요"<사랑을 표현하는 것>

[범주 3. 지배당하는 성]

[범주 3. 지배당하는 성]은 <하찮은 것>, <종속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라는 3개의 주제 군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에 반영된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하찮은 것>

참여자들은 한번 성관계를 하고 나면 상대남성은 여성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여기며 함부로 대하고, 더욱 쉽고 가볍게 성관계를 요구하게 되며 여성들도 처음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더 쉽게 응하게 되어 심지어는 여러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번 관계하면 남자들은 내 것이라는 의식이 있나 봐요 함부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 봐요 나도 한 번 했으니 두 번 세 번은 더 쉽게 하게 되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게 일어났으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나쁘다는 생각도 안 들고"<쉽게 하는 것>

예전에는 중요한 사람 즉 결혼할 사람과 성관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 잠 잘 곳을 마련하기 위해 성을 대가로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이러한 생각이 변화되어 성은 예전만큼 소중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첫 성관계로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쉽게 여러 남성과 의미 없이 되풀이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원조교제까지 하기도 하였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옛날에는 중요한 사람과 성관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시대가 변했으니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쉽게 따라 갔어요 성격도 좋고 잘해주고 그러니 쉽게 따라갔죠 처음하고 나서는 그다지 의미를 안 뒀어요 자꾸자꾸 하니까 의미를 안 두게 되더라고요"<의미가 없는 것>

● <종속적인 것>

참여자들은 상대남성이 원하기 때문에 배려하여 성관계를 해 주지만 성관계를 하고 나면 여성은 남자에게 따먹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만약 남자들이 내가 자랑했다 하면 피해보는 건 여자니까. 욕만 얻어먹는 건 저 같아요 자는 뭐 다하고 돌아다닌다.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들 끼리는요 남자들이 내가 자를 따먹었다. 좋아서 해놓고도 내가 자를 따먹었다. 막 카거든요"<따먹히는 것>

또 성관계를 상대남성의 요구에 '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만약 거부하면 상대 남성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민망해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응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빠가 하고 싶어 하니까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오빠가 하자고 그러는 데 싫다고 그러면 빠져요 처음에는 빠지다가 화를 내는 거예요 싫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해 줘요” <해 주는 것>

참여자들은 성관계로 여성의 소중한 것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관계 후에는 상대방자에게 구속되고 길들여지는 남, 녀 간의 주종관계가 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저도 모른 상태에서 나는 이 순간 도망가지도 못하겠네 한마디로 길들여진다고 볼 수 있죠 애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딱 박혀버려요 알게 모르게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행동이 그러고 있어요” <구속되고 길들여지는 것>

● <부정적인 것>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성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거나 또는 또래를 통해 성관계는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에 성을 싫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더구나 성관계를 통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싫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딱 할라고 그러기에 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더라고요 그 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때 대개 싫었어요. 하는 게 싫었고 강제로 할 라고 그러니 싫고 그 하는 자체가 싫었어요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그런 걸 말로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하면 진짜 죽는다 카면서 아파 걸지도 못하고 등에 업혀 집에 돌아와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죽을 정도로 아프다 하니까 하는 게 싫죠” <싫은 것>

결혼 전까지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성관계로 순결을 잃으면 몸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므로 성을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할 남자에게 순결을 잃어 더러워진 몸을 줘야 한다는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더럽죠. 제 몸을 버렸으니까 더럽죠. 친구들하고 그거 했다 그러면 아 싫다는 생각, 후회밖에 안 해요 제 몸을 버렸으니까요. 너 때문에 더럽혀졌다는 생각, 다음에 결혼하면 남편 되는 사람한테 미안하고” <더러운 것>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한다는 건 순결이 깨져서 내가 천하게 보이는 거 밖에 없잖아요” <순결을 잃는 것>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첫 성관계에 직면하거나 먼저 성경험을 한 친구들로부터 성관계는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에는 성을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신체적인 아픔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관계 시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남자라는 그런 게 안 해본 일을 해 보는 게 겁날 수 있잖아요. 성관계는 더하죠. 임신하면 어떻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자는 표가 나니까” <무서운 것>

“강제로 할 라고 그러니 아프고 싫고 그 하는 자체가 싫었어요. 하면 진짜 죽는다 카면서 아파 걸지도 못하고 등에 업혀 집에 돌아와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죽을 정도로 아프다 하니까 하는 게 싫죠” <아픈 것>

전통적인 사회 인습의 영향으로 혼전에 성관계를 하면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로부터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성은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관계 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남자가 생겨도 손만 잡지 관계는 결혼할 때 까지는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자 사귀고 관계를 가지면 그 아이는 나쁜 아이, 농땡이라고 인식이 박혀 버리니. 우리 선에서는 자가 누구하고 잤고 관계하고 그러면 자는 뭔데? 농땡이 이렇게 박혀 버렸거든요” <나쁜 것>

[범주 4. 윤리적인 성]

[범주 4. 윤리적인 성]은 <은밀한 것>, <책임이 따르는 것>, <생명과 연관되는 것>이라는 3개의 주제 군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각에 반영된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은밀한 것>

참여자들은 상대방성에게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었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민망함을 느끼게 되므로 성을 민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첫 성관계를 갖기 전에는 또래들이 모여서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창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성관계를 경험한 후에는 자신이 경험한 성관계 장면이 생각이 나서 남에게 숨겨야 할 것을 들킨 것 같이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벗었다는 게 민망하고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게 민망하잖아요 집에 오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그런 게 민망했어요” <민망한 것>

“반에서 노는 애들은 반 애들이 남자 만나 성관계한 얘기를 하고 화장실이나 교실에서 성관계하는 자세나 흉내를 내면 내가 다 창피한 생각이 들어요” <창피한 것>

또 성에 대한 얘기는 부끄러워 숨겨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 인식 때문에 이들은 자신과 같이 성관계를 경험한 친구들과는 성 경험담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 숨겨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여기 들어오니까 성에 대한 얘기를 서서럼없이 하는데 전 사실 그런 얘기하면 부끄럽거든요 다른 애들은 성관계한 것을 많이 드러내는데 전 그러지 못해요. 해 본 사람끼리는 괜찮은데 안 해 본 사람한테는 부끄럽거든요” <숨기고 싶은 것>

● <책임이 따르는 것>

참여자들은 첫 성관계를 갖기 전에는 대부분 결혼 후 남편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일단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결혼과 결부시켰고 성관계가 반복되면서 더욱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지는 성을 결혼과 연관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결혼할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할 거다. 그랬는데 나는 남자가 생겨도 손만 잡지 관계는 결혼할 때까지는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과 연관되는 것>

“책임질 수 있는 나이면 괜찮겠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안 하는 게 좋고 괜히 몸만 버리는 거고” <책임져야 하는 것>

● <생명과 연관되는 것>

먼저 성관계를 경험한 친구들이 성 경험담을 얘기할 때 ‘성관계를 하면 임신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막연하게 성을 임신과 연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신, 출산과정을 겪고 난 뒤 성관계는 아무 때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해야 하는 행위로 확신하게 되었다. 즉 성관계를 통해 생명을 탄생시키고 나서야 성을 생명과 연계되는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친구들은 ‘성관계하면 어떤데?’ 보다 ‘성관계하면 애 안 가지나?’ 이렇게 묻죠 애기 가질 수 있잖아요. 애기 낳고 나니 나한테는 지금 성이 바로 생명으로 연결되니까 의미가 있어요” <임신, 생명과 연계되는 것>

“성은 소중하죠 지금은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인간의 성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성관계로 만들어지니까 성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죠” <소중한 것>

[범주 5. 정체감의 성]

[범주 5. 정체감의 성]은 <성역할의 표현>, <또래 문화의 영역>이라는 2개의 주제 군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각에 반영된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성역할의 표현>

참여자들은 성을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남자와 여자로 보이게 되면 성관계를 요구할 수 있고 성관계를 통해 상대 이성을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상대남성에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에도 여성스러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 때까지는 남자 친구로 생각했으니까 그런 감정이 안 보인 게 아닌가. 나를 여자로 생각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왈가닥에 선머슴아 같았는데 오빠 사귀고 성관계하면서 애교도 피게 되고 무뚝뚝했던 것이 달라지고 성관계를 해서 내면에 있던 원래의 여성스러움이 나온 것 같아요. 오빠한테 조금이라도 이뻐 보이고 싶고”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것>

● <또래 문화의 영역>

같은 또래들과 어울려 남자친구를 사귀고 성관계를 가짐으로서 또래들과 함께 하는 영역 내에 들어갔다고 느끼고 비로소 자신이 또래들과 같아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많이 만나고 성관계도 하니까 남들과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몰랐던 남자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도 같고” <또래와 같아지는 것>

논 의

본 연구 결과 미혼모들이 갖는 성에 대한 인식이 ‘도구로서의 성’, ‘욕구 표현의 성’, ‘지배당하는 성’, ‘윤리적인 성’, ‘정

체감의 성' 등 5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미혼모들이 성을 '도구로서의 성'으로 인식하는 것은 미혼모가 성을 삶의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 산업에 유입되는 청소년들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이 가출로 인해 집 밖에서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수단으로 성을 이용한다는 Ko (2001)의 연구결과와, 10대 소녀들은 불안정한 가정상태와 가난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버려지면 쉽게 가출하여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을 돈과 바꿀 수 있는 상품으로 이용한다는 Kong (200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성을 생계 수단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경우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원조교제나 매매춘에 빠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사회전반의 구조적 관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청소년의 원조교제가 성인들의 잘못된 성 인식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청소년의 왜곡된 성 인식으로 인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는 하나의 현상으로도 볼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 인식을 확립시키기 위한 교육과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새로운 해결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 성을 소유와 관계유지를 위한 연결고리로 인식한 것은 Eshelman (1988)이 성관계 당시의 성 파트너와 순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한다는 결과나 Cho와 Han (1998)이 성관계를 상대남성과 관계 맺기의 한 형태로 인식하여 실제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미혼모들은 상대남성을 소유하고 관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미혼모들이 첫 성관계 후에는 성을 하찮고 의미 없게 생각하며 성으로 인해 상대남성에게 종속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성을 '지배당하는 성'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Lee (1993)는 미혼 여성들이 성관계를 누군가에게 자신의 순결이나 육체를 제공하는 것이고, 성관계를 '당했다, 해주는 것, 거절할 수 없어서,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등의 남성 중심적 표현을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전통적인 이중적 성문화가 미혼모들의 의식 속에도 여전히 강하게 뿌리박고 있어서 성관계를 능동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남성에게 구속되는 주종의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속의 관계로 생각하는 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양성 평등에 근거한 성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남성 중심적 성문화의 영향으로 미혼모들은 순결을 잃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성을 금기시하고 은밀하게 여기는 성 문화에서 학습된 결과이기도하고 몇몇치 못한 자신의 성경험

을 통해 정립된 결과라 할 수 있다. Chang (1989)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한 인식이 비공식적으로 은밀히 전달되어 성을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부정적인 성 인식은 주로 첫 성관계에 직면할 때 갖게 된 것으로 성을 터부시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 담론을 나눌 수 없어 올바른 성 정보를 갖지 못한 영향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첫 성관계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면 오랜 기억 속에 남게 되어 앞으로의 성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일찍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성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혼모들이 성을 '욕구표현의 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다양한 음란성 매체를 경험하고 또래집단 내에서 왜곡된 성 경험담을 서로 주고받게 되면서 한 번 해보고 싶은 호기심을 갖게 되고, 특히 어린 시절에 겪은 성 경험은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 성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어 실제 이성 교제 시 이런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해 Cho와 Han (1998)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성기 중심의 성 담론을 통해 왜곡된 성 지식을 얻고 있어 실제 경험 해보고 싶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연구와 같은 결과라 하겠다. 미혼모들이 또래집단이나 상품화된 음란매체를 통하여 얻게 되는 성에 대한 정보는 왜곡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적충동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어릴 때부터 성을 올바로 알고 성적 호기심에 건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음란매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성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무방비하게 과장된 성 정보에 유혹되지 않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더구나 미혼모들이 성관계에 한 번 노출되고 나면, 지속적인 관계로까지 이어져 성적인 쾌감을 느끼게 되고 성을 즐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Cho와 Han (1998)은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경험하고 나면 성에 탐닉되어 자꾸 하게 되는 쾌락으로 인식한다고 하였으며, Eshelman (1988)도 청소년기의 성행동은 상황적이고 충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관계에 노출되면 성적 쾌락을 느끼게 되어 자신의 몸이 쾌락의 근원임을 알게 되어 반복적으로 성행위를 하게 된다는 보고와 유사하다. 성에 대한 관심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이지만 과장되고 왜곡된 성 매체를 통한 성적 자극은 올바른 가치관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일탈된 성행동을 가져올 수 있기에 이성애에 대한 환상이나 무조건적인 배척 대신 남녀의 특성과 역할, 성 심리상태를 올바르게 이해시킴으로 바람직한 성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미혼모들이 사랑의 표현으로 성을 인식하는 것은 Oh (2001)가 여대생을 대상

으로 한 보고에서 성은 즐길 수 있고, 좋으면 먼저 요구할 수 있으며, 사랑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현대의 젊은 여성들은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나 기준, 규범 등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뜻에 따라 사랑하거나 좋아한다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다(Atwater, 1992; Kong, 2002; Traeen & Kvaem, 1996).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생명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미혼모들이 성을 '정체감의 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de la Cuesta (2001)의 보고에서도 성관계를 시작함으로써 여성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즉 미혼모들이 성을 통해 여성이 되고 상대남성도 남성으로 인식하게 됨을 알 수 있겠다.

미혼모들이 성을 '윤리적인 성'으로 인식하는 것은 성이 생명출산의 행위이자 순수혈통의 계승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교 중심의 전통적 성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의 영향으로 미혼모들은 성을 은밀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관계를 하면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하고 있었다. 특히 임신, 출산을 경험하고서야 생명과 연계되는 과정임을 실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Cho (1995)의 보고에서 부모들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일 때 자녀들로 하여금 성을 자연스럽게 당당한 것이 아닌 감추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결과와 Kong (2002)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인정되는 성은 결혼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탈적인 성으로 비난받게 되기 때문에 결혼으로 합법화시키려 한다는 보고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성을 은밀함으로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성은 여성을 통제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되고, 그러한 인식의 영향으로 여성들은 피임하기가 어렵게 되어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이어져 낙태와 미혼모 발생을 더욱 증가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성에 대한 은폐는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므로 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성 담론의 장을 마련하여 성을 올바르게 알고 생명과 연관된다는 의식 교육을 보다 일찍 시행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보면, 미혼모들의 성에 대한 인식은 그들이 성장 배경과 경험, 최근 또래 집단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미혼모들이 경험한 특별한 사건 즉 성행위, 임신, 출산은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고, 특히 첫 성관계는 성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성 경험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면 사고의 전환이 어려우므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미혼모들이 성을 삶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성문제 발생의 소지가 크므로, 학교나 사회에서 대상자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 방법을 통한 성교육이 보다 이른 연령부터 시행되어 올바른 성 인식을 정립하도록 하여야겠고, 또 성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컴퓨터나 매스컴을 통한 왜곡된 성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불법 성 매체 차단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 성은 생명과 떼어 수 없음을 강조하는 생명교육과 더불어 성관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피임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올바른 성 태도와 안정된 가정환경은 자녀들의 긍정적인 성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가정 내에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성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혼모들이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경험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경험하게 되면서 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Colaizzi (1978)의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15-20세의 미혼모 11명을 시설 내에서부터 퇴소 후까지 개별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면담은 2002년 8월에서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른 2003년 9월까지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도구로서의 성", "욕구 표현의 성", "지배당하는 성", "윤리적인 성", "정체감의 성"의 5개의 범주와 각 범주에 따른 12개의 주제 군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범주인 "도구로서의 성"은 '생계수단', '연결고리'라는 주제묶음에서 도출되었으며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환경에서 갖게 되는 인식이다. 두 번째 범주인 "욕구 표현의 성"은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행하게 하는 상황에서 갖게 되는 것으로 '하고 싶은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서 도출되었다. 세 번째 "지배당하는 성"은 성관계를 경험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오는 주된 요인으로 '하찮은 것', '종속적인 것', '부정적인 것'의 주제에서 도출되었다. 네 번째 "윤리적인 성"은 '은밀한 것', '책임이 따르는 것', '생명과 연결되는 것'의 주제에서 도출되었으며 미혼여성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성 인식이다. 다섯째 "정체감의 성"은 '성역할의 표현', '또래문화의 영역'의 주제묶음에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미혼모의 성 인식을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미혼모 상담 전문가 및 보건교사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미혼모 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미혼모의 성에 대한 인식은 남성의 성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남성의 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 미혼모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구조적 측면의 노력이 요구된다.
-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미혼모 예방 프로그램 및 미혼모 상담 전문가 훈련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References

- Atwater, E. (1992). *Adolescence*, Englewood Cliff, New Jersey, Practice Hall.
- Bae, M. Y. (2000). *The factor that affect the growth of unmarried mot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Taejon University, Daejeon.
- Chang, P. W. (1989). A review of feminist analyses of sexuality. *J Korean Assoc Women's Stud*, 5, 49-79.
- Chen, H. J., Bae, S. H., Song, M. H., Song, H. A., & Jun, G. Y. (2002). A study on experiences of institutionalized unmarried teenage mothers pregnancy and sexual behavior. *J Korean Home Manag Assoc*, 20(4), 1-12.
- Cho Han, H. J. (1998). Sexuality of youth culture. *J Korean Assoc Women's Stud*, 14(1), 8-40.
- Cho, Y. J. (1995). *A study on the formation of woman's sexual ident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Colaizzi, P.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de la Cuesta, C. (2001). Taking love seriously: The context of adolescent pregnancy in Colombia. *J Transcultural Nurs*, 12(3), 180-192.
- Do, M. H., & Jung, E. M. (2001). A study on problem of teenage mothers and welfare policy. *J Adoles Welfare*, 3(2), 1-11.
- Eshelman, J. R. (1988). *The family: An introduction (5th ed.)*. Allyn and Bacon, Inc.
- Han, J. S. (2001). *A phenomenological study on unmarried teenage experience of pregnancy and delive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Han, Y. R., & Yang, S. O. (1997). The study on the pregnancy experiences of unmarried mothers. *J Korean Soc Public Health Nurs*, 11(2), 194-208.
- Joo, S. N. (1999). *A study on the childbirth experience of unmarried mo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Kim, H. S., & Lee, H. J. (1999). Sexual awareness and sexual attitude of adolescent. *J Myongji University Natural Sci*, 18, 127-134.
- Kim, M. J. (2001). An analysis of the related factors to the stress of the unmarried mothers. *J Korean Econo Assoc*, 39(8), 53-65, 2001.
- Ko, E. Y. (2001). *Study of Korean people's sexual devi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uk University, Seoul.
- Kong, M. H. (2002). Sexual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married women who have experienced the extramarital relationship. *J Korean Assoc Family Relations*, 7(2), 1-20.
- Kong, M. H. (2003). Material girls: Sexual perceptions of Korean teenage girls who have experienced 'compensated dates'. *AJWS*, 9(2), 67-94.
- Kwen, H. J., Chung, H. K., Ryu, E. J., & Chung, Y. K. (1998). A study of sexual attitudes in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Soc Sch Health*, 11(2), 229-241.
- Lee, S. G. (1993). *A study of unmarried women's sexu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incoln, Y. S., & Guba, E. G. (1985). *Effective evaluation (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tion.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2). *The present conditions of institutionalized unmarried mothers*. Seoul, Korea.
- Moon, J. S. (2002). *Study on actuality analysis of young unmarried mother of our count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Oh, H. K. (2001). *An ethnography on sexual perception of female students in University,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 Traeen, B., & Kvaem, L. (1996). Sexual socialization and motives for intercourse among Norwegian adolescents. *ASB*, 24, 173-206.
- Yang, S. O., Back, S. H., & Jeong, G. H. (1999). Analysis of materials for sexual education in Korea. *J Korean Comm Nur*, 10(2).
- Yoon, M. Y., & Lee, J. Y. (2002). Characteristic of teenage unwed mothers in Korea. *J Korean Assoc Child Stud*, 23(3), 149-169.

Perceptions of Sexuality in Unmarried Mothers

Jeong, Kyung Soon¹⁾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imcheon Science College

Purpose: A phenomenology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in-depth data to help in the understanding of young women who have become unmarried mothers. **Method:** In-depth interviews were done with 11 unmarried mothers from August 2002 to September 2003. Data were recorded and analyzed by Colaizzi method. **Result:** Significant statements consisted of 5 categories with 12 theme clusters accompanying each category. The categories were: "Sex as a tool" which included living and connections, "Sex as an expression of her desire" which included wanting and expression of love, "Sex to be dominated" which included significance, domination and negative aspects of sex, "Moral sex" which included secrecy, responsibility and connections with life, "Sex as a sense of identity" which included expression of gender and association with peer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indicate directions for care of unmarried mother, which should be based on a deep understanding of their personal perception of sexuality. Also, it can be utilized as basic materials for development of sex educational programs to prevent repeat pregnancies in unmarried women and information on consultation with unmarried mothers.

Key words : Perception, Sexuality, Unmarried mother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eong, Kyung Soon

Department of Nursing, Kimcheon Science College

480 SamRak-Dong, Kimcheon, Kyungpook 740-703, Korea

Tel: 82-54-420-9217 Fax: 82-54-420-9279 E-mail: 1ksjung@hanmail.net